

**‘재팬스 웨이(Japan’s Way)’를 통한 일본 축구 발전 시스템에 대한 고찰**  
: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김정기

**<목 차>**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재팬스 웨이(Japan’s Way)란?

1-2-1. FIFA 월드컵 정의 및 우승 국가의 특징

1-2-2. 재팬스 웨이(Japan’s Way)의 목표와 일본 축구의 특징

**2. 본론**

2-1. 일본의 축구 리그

2-1-1. J리그의 등장

2-1-2. J리그 백년구상을 통한 축구의 지역 사회화

2-1-3. J리그로 보는 K리그 산업의 발전 방향성

2-2. 일본의 선수 육성

2-2-1. 유스 육성의 중요성과 시스템

2-2-2. 일본 축구가 지향하는 선수상

2-2-3. 엘리트 유스에 대한 오해와 개선 방향성

2-3. 일본의 지도자 양성

2-3-1. 일본 축구의 지도자 양성 체계

2-3-2. 축구에서 지도자의 진정한 역할

**3.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재언**

주제어 : 일본 축구, 한국 축구, Japan’s Way, 월드컵, J리그 백년구상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아주 먼 옛날 발로 무언가를 차면서 놀던 것부터 시작하여, 규칙이 생기고 기술의 변화를 반복하며 현대 축구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삶이 그렇듯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경쟁 스포츠인 ‘축구’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국가대표가 되어 가슴에 자신의 나라를 품고 세계 대항전에 나가 승리하는 것은, 축구선수들의 큰 꿈이자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일 것이다.

우리나라 축구는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해외로 나가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축구 수준과 동시에 팬들의 문화적인 수준도 높아졌다. 과거 차범근 선수의 활약부터 박지성, 이영표 선수 등을 넘어 이제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점점 더 많은 선수가 해외로 나가 활약하고 있다. 또 이제는 단순한 일원이 아닌 팀의 주요 선수로서 큰 임무를 맡고 있어서 더욱 축구팬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원한 축구 라이벌 일본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많은 선수가 해외에 나가고 있는 건 축구에 진심인 팬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말 유명한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는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축구 경쟁에서 계속 앞서나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팀인 A대표팀이 3대0의 결과로 2연패, U-23 대표팀 또한 3대0의 스코어로 패배, U-17 대표팀도 3대0이라는 큰 스코어로 2연패를 기록했다.<sup>1)</sup> 가장 주축이 되는 성인 대표팀부터 성장 중인 미래 대표팀들까지 전부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다.

물론 한일전 축구의 총전적을 본다면 A대표팀 기준 한국이 42승 23무 16패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최근 결과들을 보면 앞으로도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축구가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 1-2. 재팬스 웨이(Japan's Way)란?

### 1-2-1. FIFA 월드컵 정의 및 우승국의 특징

축구에서 가장 위상이 높고 그만큼 많은 선수와 팬들이 우승을 바라는 대회는 무엇일까?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고 할 순 없지만, 그런데도 하나를 뽑자면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주관하는 ‘월드컵’일 것이다. 월드컵은 1930년부터 4년 주기로 개최하는 축구 대회로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가린다.

현재까지 최다 우승국은 총 5회의 브라질이며 최근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은 아르헨티나이다.<sup>2)</sup> 그렇다면 아시아 내 국가 중 월드컵을 우승한 국가가 있을까? 역대

1) KFA\_대한축구협회, [https://www.kfa.or.kr/national/?act=nt\\_man](https://www.kfa.or.kr/national/?act=nt_man) (검색일: 2023.09.17.)

2) FIFA\_국제축구연맹, 숫자로 보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무엇보다 갈망하는 우승컵, 월드컵 트로피, <https://www.fifa.com/fifaplus/ko/articles/world-cup-trophy-in-numbe>

월드컵 우승팀을 살펴보자면, 1930년 첫 월드컵인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우승국 우루과이를 뒤이어 1934~1938년 이탈리아 2연패, 1950년 우루과이, 1954년 독일(서독), 1958~1962년 브라질 2연패, 1966년 잉글랜드, 1970년 브라질, 1974년 독일(서독), 1978년 아르헨티나, 1982년 이탈리아, 1986년 아르헨티나, 1990년 독일(서독), 1994년 브라질, 1998년 프랑스, 2002년 브라질, 2006년 이탈리아, 2010년 스페인, 2014년 독일, 2018년 프랑스, 2022년 아르헨티나<sup>3)</sup>로 아시아에 속해있는 국가에선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월드컵 우승에 가까운 유럽과 남미 국가의 축구는 어떤 것이 다를까? 월드컵 우승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나라만의 스타일, 복사&붙여넣기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축구 및 발전 계획이 있으며, 그것에 자부심이 있다는 점이다.<sup>4)</sup> 예를 들어, 2010년을 주름잡았던 스페인의 티키타카(Tiki-Taka) 전술부터 독일의 디 만샤프트(Die Mannschaft)와 브라질의 삼바 축구<sup>5)</sup> 등, 각자 자기 나라만의 독자적인 축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 1-2-2. 재팬스 웨이(Japan's Way)와 일본 축구의 특징

이처럼 월드컵 우승국들이 가진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자, 일본은 재팬스 웨이(Japan's Way)라는 계획을 토대로 일본 축구를 강화하여 2050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006년에 기술위원회에서 최초로 사용된 말이 이 ‘Japan's Way’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눈을 돌림으로써 ‘약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무기를 들고 ‘세계로 치고 나가자’는 발상이며, 이를 통해 ‘2005년 선언’의 실현, 즉 세계 정점을 목표로 하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sup>6)</sup>

위와 같이 언급한 것처럼 재팬스 웨이(Japan's Way) 계획은 일본 축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단점이라 비치던 것을 우리만의 강점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전부터 일본 축구 선수들의 단점으로 지목되던 것은 바로 ‘작은 체구’, 즉 피지컬 능력의 결여다. 실제 최근에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일본 선수들의 평균 키를 보면 179.7cm로 출전국 32개국 중 30위에 위치하고 있다.(한국은 180.9cm로 24위)<sup>7)</sup> 하

[rs-fifa-world-cup-qatar-2022-ko](https://www.fifa.com/fifa-world-cup-qatar-2022-ko) (검색일: 2023.09.22.)

3) FIFA\_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역대 우승팀, [https://www.fifa.com/fifaplustv/ko/watch/9hoKx\\_KwckugreE8cDyPPQ](https://www.fifa.com/fifaplustv/ko/watch/9hoKx_KwckugreE8cDyPPQ) (검색일: 2023.09.22.)

4) JFA, “Japan's Way 2022” p.3

5) 티키타카(Tiki-Taka):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축구의 경기 전술  
디 만샤프트(Die Mannschaft): 개인이 아닌 팀의 피지컬과 조직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축구  
삼바 축구: 삼바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개인기와 드리블의 축구

6) JFA, “Japansway 2022” p.3

7) 스킨의 ぽぽくん、サッカーW杯出場国の選手の平均身長一覧, [https://www.suku-noppo.jp/data/w-cup\\_2022.html](https://www.suku-noppo.jp/data/w-cup_2022.html) (검색일: 2023.10.01.)

지만 작은 체구임에 가능한 빠른 움직임과 동료와의 연결과 같은 세밀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물론 피지컬이 좋다고 그런 플레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피지컬 면에서 극복하지 못한 부분을 장점으로 살려 더욱 발전시켜온 것이다.

토이린 감독은 “일본은 연결하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신장이 크다 보니 공중전에서 우위에 있었다. 사실 한국의 어떤 부분이 뛰어나고, 못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일본은 그간 연구하고 쌓아온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토인 요코하마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아마우치 히나타는 역시 “한국은 피지컬이나 체격이 뛰어나다. 반면 우리는 기술이나, 상대를 제압하는 플레이가 장점이다”라고 했다.<sup>8)</sup>

위와 같이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축구를 구사하고 발전시켜가는 모습은 국가 대항전은 물론 현대 축구 내에서도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재팬스 웨이(Japan's Way)는 단순히 축구 스타일을 가지는 것만으로 월드컵을 우승할 것이라는 계획이 아니다. 2005년 첫 준비에 돌입해 20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계획인지 이후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일본의 축구 리그

#### 2-1-1. J리그의 등장

과거 일본 축구 리그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인 1964년, 기술고문으로 부임 된 데트마어 크라머<sup>9)</sup>는 도쿄 올림픽에서 8강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4개의 제언을 통해 일본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국단위 리그 창설’이었다. 강한 대표팀을 소유한 국가에는 예외 없이 높은 국내 경쟁력이 존재한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라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아A 등, 경쟁력 있는 국내 리그에서 싸우며 힘을 키워 세계와 싸울 수 있는 선수를 키워내는 것이다.<sup>10)</sup> 이런 선례를 프로파일링하여 1965년에 출범한 일본 사커 리그 통칭 ‘JSL’로 불리는 아마추어 실업 리그에서부터 1993년 프로 리그인 ‘J리그’가 탄생하였고, 처음 창설된 10개의 팀에서 점점 확대되어 2023년 현재 60개의 클럽(J1, J2, J3 총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 전국 47개의 도도부현 중 J리그 소속 클럽이 없는 곳은 6곳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클럽이 창설된 것이다.

8) “한국은 피지컬, 일본은 기술과 연계 플레이”...일본 지도자·선수가 말하는 韓-日 축구의 차이, <스포츠서울>, 2023. 09. 26.,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52862> (검색일: 2023.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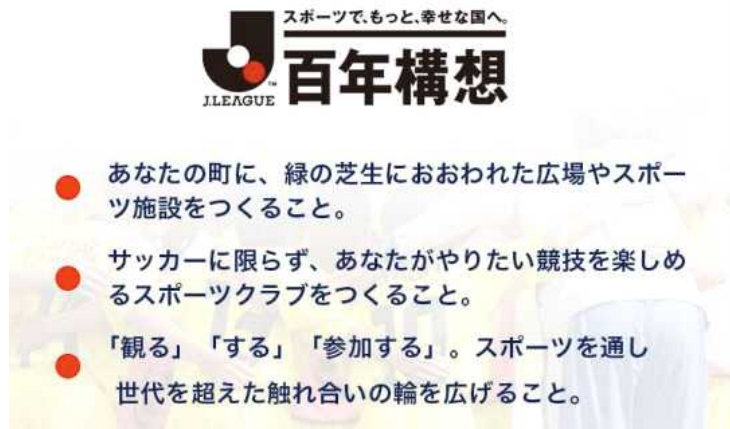
9) Dettmar Cramer (1925~2015), 독일 전 축구 선수이자 축구 감독이며 일본 대표팀 기술고문을 맡았다. 일본에선 1964 도쿄 올림픽 8강,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성과를 남기며 ‘일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10) JFA, “Japansway 2022” p.4

## 2-1-2. J리그 백년구상을 통한 축구의 지역 사회화

J리그에서는 1993년 개막 당시 ‘지역 밀착’이라는 키워드로 “당신의 마을에도 J리그는 있다”라는 슬로건에서 시작된 J리그의 백년구상은 “스포츠로, 더, 행복한 나라로.”라는 말로 바꾸어 가며 서서히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작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과거부터 축구의 인기가 높았던 유럽과 남미에는 확고한 축구 문화가 존재하며 당연하게도 지역에 뿌리내리고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 클럽들이 존재한다. 물론 그 정도의 역사는 없다고 할지라도, 축구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스포츠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일본이 열광하던 프로 스포츠는 야구였으며, 야구가 유일한 단체 프로 스포츠이기도 했다.<sup>11)</sup> 그렇게 비인기 스포츠였던 축구를 프로화하고 지역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해, J리그는 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 전국에 뿌리를 내려 축구의 지역 사회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림 1> J리그 백년구상 대표 슬로건



- 당신의 마을에, 녹색 잔디로 덮인 광장과 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것
- 축구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경기를 즐기는 스포츠클럽을 만드는 것
- 「본다」「한다」「참여한다」 스포츠를 통해서 세대를 넘어선 만남의 고리를 넓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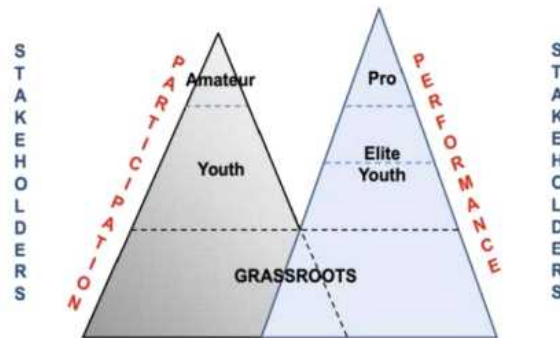
<출처: Japansway 2022>

그렇다면 J리그의 백년구상은 재팬스 웨이(Japan's Way)의 관점에서 일본 축구의 발전에 어떤 힘을 발휘할까?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즐길 수 있는 풀뿌리 축구(グラスルーツ)에서부터 시작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J리그 백년구상의 핵심

11) “Jリーグ開幕30年：驚異的成長と挫折を経て手にした果実と「百年構想」の未来”, <日本情報多言語発信サイト>, 2023.05.22., <https://www.nippon.com/ja/japan-topics/g02291/>(검색일: 2023.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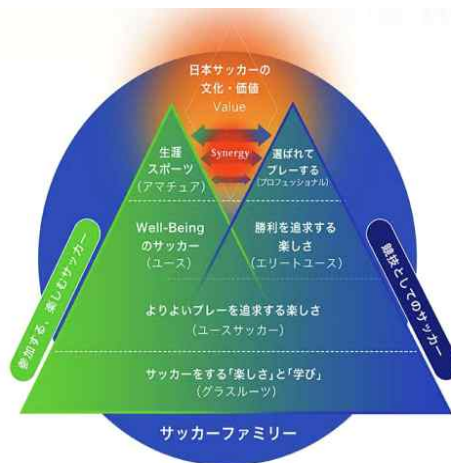
은 축구의 지역 사회화이다. 일본 축구 협회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지는 가치를 높여, 그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2)</sup>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고’ ‘참여하는’ 것까지 문화 수준을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나라 전체의 축구 수준 상승과 웰빙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림 2> FIFA에서 제시한 축구 사회 피라미드



<출처: Japansway 2022 p.10>

<그림 3> Japan's Way에서 제시한 축구 사회 피라미드



<출처: Japansway 2022 p.10>

위 <그림2>, <그림3>과 같이 많은 나라들은 경쟁적인 축구와 웰빙을 위한 축구가 급격히 나뉘고 이후 공통적인 부분이 생기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본이 추구하는 방식은 그래데이션으로 표시된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피라미드가 밀접하게 관계를

12) JFA, JFAグラスルーツ宣言, [https://www.jfa.jp/grass\\_roots/declaration/](https://www.jfa.jp/grass_roots/declaration/) (검색일: 2023.10.03.)

맺으며 ‘시너지(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sup>13)</sup> 이것이 바로 일본 축구의 근간이자 무기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오카노 슌이치로<sup>14)</sup>가 말한 J리그 백년구상의 필요성이다.

문명이 진행될수록 청소, 빨래 등의 작업은 기계를 사용한다. 이것은 멋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발레나 에어로빅으로 여가를 즐기거나 공부할 여유가 생깁니다. 멋진 일 이네요. 그러나 문명이 진보함에 따른 ‘양’이 비치는 일면으로, 양이 비치면 반드시 ‘음’이 생깁니다. ‘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활 속에 있던 신체적 자극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인간 세포에 필요한 자극이 줄어드는 거죠. 그것을 잊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스포츠가 필요하고 중요성을 더해가는 거죠. 21세기 J리그가 목표로 하는 백년구상의 하나가 다양한 장소를 스포츠가 가능한 장소로,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비어 있는 시간에 즐겁게 땀을 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J리그 백년구상은 단순히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이 생활 속에서 적절한 신체적 자극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 해결 방법의 제안입니다.<sup>15)</sup>

이처럼 J리그의 백년구상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접근 허들을 낮추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축구에 관한 대화가 이어지고 길거리에서 즐겁게 공을 차며 같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등, 축구가 일상이 되는 것. 그렇게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축구가 국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스포츠가 되었을 때,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 말하고 있다.

### 2-1-3. J리그로 보는 K리그 산업의 발전 방향성

일본 축구의 프로리그인 J리그가 있듯이 한국 축구에도 프로리그인 K리그가 존재한다. K리그는 1983년에 출범했으며, 일본의 J리그보다 10년 일찍 출범한 프로리그이다. 국가 대항전인 한일전의 열기까지는 아니지만, J리그 팀과 K리그 팀의 경기는 그에 못지않게 뜨거운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두 리그의 팀은 AFC 챔피언스 리그<sup>16)</sup>라는 큰 무대에서 자주 우승 경쟁에 뛰어드는데, 최다 우승 국가는 한국의 K리그가 총 12번 우승하였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일본의 J리그가 총 8번을 우승하며 각각 1,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우승 기록을 봐도 2020년 K리그 팀인 울산 현대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2021년엔 포항 스틸러스가 준우승, 2022년엔 J리그 팀인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리그의 기술적 상하 관계를 나누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K리그와 일본의 J리그는 기술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며, 그것은 곧 그 리그와 나라의 축구 스타일이 된다.

13) JFA, “Japansway 2022” p.10

14) 岡野俊一郎 (1931~2017), 전 축구 선수, 축구 지도자, 제 9대 일본 축구협회 회장

15) JFA, “Japansway 2022” p.11

16) AFC(Asian Football Confederation) 챔피언스 리그로 불리는 대회로, 아시아 최고의 축구단을 가리는 아시아 축구 연맹 산하 최상위 클럽 대항전이다. (유럽에선 UEFA 챔피언스 리그에 해당하는 대회)

레오나르도는 “J리그의 스타일은 종합적이다. 스트라이커부터 골키퍼까지 전원이 수비를 해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 중 가장 어려운 리그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K리그에 대해서는 “피지컬 승부를 중요시한다. 한국 선수들의 피지컬이 뛰어나다. 유럽 빅클럽에서 뛰는 수가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sup>17)</sup>

위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K리그와 J리그의 기술적인 측면은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 발전한다. 리그와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장단점이 다르고, 어디가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나눌 수는 없다.

하지만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J리그와 K리그의 산업적 발전 측면을 보면 미래에도 경기력에만 의존한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프로축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이자 큰 산업 수단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수단이며, 돈이 벌리지 않으면 유지하지 못하고 도태되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유럽의 작은 클럽부터 큰 클럽까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 위건 애슬레틱(잉글랜드), 보르도(프랑스)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클럽들은 겨우 파산 위기를 넘기거나 키에보 베로나(이탈리아) 등은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또 라리가 명문 바르셀로나도 경기 수입 감소로 인해 큰 경제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간판선수인 ‘리오넬 메시’와의 이별은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다.<sup>18)</sup> 이처럼 프로축구에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J리그와 K리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발부터 수준이 달랐다. 리그의 수준을 재는 척도에는 경기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리그가 얼마나 잘 운용되고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K리그가 J리그보다 10년 먼저 출범하였으나 그 출발은 매우 엉성하였다. 야구와 축구 중 누가 먼저 프로화를 하느냐를 두고 경쟁하다 야구보다 1년 늦은 1983년에, 아마추어팀인 국민은행을 불러들여 5개의 구단으로 슈퍼리그를 어설픈 프게 출범시켰다. 그에 반해 일본의 J리그는 1992년 새미프로 리그를 펼치는 등 착실한 준비 과정을 거쳐 그다음 해인 1993년에 10개 구단으로 J리그를 출범하였다.<sup>19)</sup> 이후 1996년 J리그 백년구상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구단의 지역 사회화와 동시에 모든 국민의 스포츠 친화를 중심으로 한 리그를 만들어 나갔다.

그것에 맞게 J리그의 다수 구단에는 ‘홈타운실’이라고 명명된 지역 공헌 사업 전문 부서가 존재한다. 출범 당시부터 프로축구의 주 소비층인 10~25세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축구단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팬들에게 묻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역 밀착 활동을 1년에 약 100회 이상 진행할 정도로 다양한 이벤트나 마케팅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

17) "J리그가 가장 어려워"…울산에서 뛰었던 레오나르도의 한·중·일 비교, <스포탈코리아>, 2023.08.17., [https://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23081712595218](https://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23081712595218) (검색일: 2023.10.10.)

18) “유럽 축구, 코로나로 2조7000억원 손해”, <경향신문>, 2021.08.25., <https://www.khan.co.kr/sports/football/article/202108252204005> (검색일: 2023.10.10.)

19) K리그와 J리그는 출발부터 수준이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여전하다, <SPOTVnews>, 2018.07.27.,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92> (검색일: 2023.10.12.)



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sup>20)</sup> 이는 단단한 연고지 팬층을 만들어 구단의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스폰서십과 같은 사업 확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선수단과 경기장에 재투자하게 되면 높은 질의 경기를 보러 더 많은 팬이 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그림 4> 비셀 고베로 이적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sup>21)</sup>



<출처: <https://www.vissel-kobe.co.jp/news/article/14825.html>>

그 예로 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니에스타의 비셀 고베 이적 사례를 들 수 있다. 2018년, 이니에스타가 FC 바르셀로나를 떠나 비셀 고베에 입단한 당시 관중 수는 전년 대비 약 5만 7000명 증가한 36만 7716명을 기록했으며, 이듬해인 2019년도에는 비셀 고베의 원정경기 관중 수 또한 83.8%로 증가하였다. 또 이후 해외에서 J리그 노출 빈도가 1.5배가 늘었으며, 비셀 고베는 J리그 클럽 사상 처음으로 114억 4000만엔 (약 1045억 원, 2019년도 기준)이라는 수익을 기록했다.<sup>22)</sup> 이는 일본 축구 팬들은 물론, 해외에 있는 이니에스타 팬들까지 사로잡으며 J리그의 산업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에 반해 K리그는 장기 프로젝트 물론, 지역 밀착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거의 없어서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마케팅팀’ 또는 ‘홍보팀’ 등의 부서에서 다수 업무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등 중요 사업 수단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J리그에 비해 운영 모토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며,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조직의 미래를 도모하는 데 어

20) K리그 30년… 자립 기반은 먼 길, J리그 ‘지역 밀착 마케팅’ 배워라, <경향신문>, 2014.01.21., <https://www.khan.co.kr/sports/football/article/201401212100235> (검색일 2023.10.15.)

21) 안드레스 이니에스타(Andrés Iniesta): 1984년생으로 스페인 명문 클럽 FC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를 4차례 우승, 스페인 대표팀에서 월드컵, 유로 우승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이다.

22) J리그 규정까지 바꿨다… ‘월드스타’ 이니에스타가 5년간 일본축구에 남긴 것, <조선일보>, 2023.07.02., <https://www.chosun.com/sports/world-football/2023/07/02/SN4IKKQVB7X3V4TACAD5UAV3QI/> (검색일: 2023.10.17.)

려움을 준다. 그렇게 출범 후 약 30년이 지난 2013년, K리그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발전된 미래와 안정된 리그 운영을 목표로 리그 차원에서 'Beyond 11'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Beyond 11'은 10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B'est in class, 'E'xcellent service, 'Y'outh club system, 'O'bligation to community, 'N'ew business, 'D'evelopment specialist의 약자로 '최고의 경기력을 통한 승강제의 안정적 정착', '팬들에게 탁월한 서비스의 제공', '한국형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 '신규 비즈니스를 통한 구단 자생력 강화', '프로 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을 나타낸다.<sup>23)</sup> 승강제, 유소년 클럽, 신규 비즈니스, 스포츠 전문 인력은 구단이 외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변화의 과정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의 길은 굉장히 먼 길일 수 있다. J리그의 흥타운 정책과 같은 그 구단이 정착한 지역의 사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일은 단기간 만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람들이 우리 구단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것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례를 제대로 공부하여 빠르게 구단의 이미지와 모토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림 5> J리그 구단의 지역 밀착 활동을 벤치마킹하러 출국하는 K리그 실무자들



<출처: <http://www10.newstomato.com/one/view.aspx?seq=444533>>

위 사진은 J리그의 지역 밀착 활동을 벤치마킹하고자 2014년 K리그 실무자들이 2박 3일간 일본으로 떠난 모습이다. 마쓰모토 야마가 FC의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를 바탕으로 7년간 입장 관중이 약 550%(2007년 2천 명->2013년 1만 1천 명으로 증가) 가량 증가한 사례와, 지자체와 연계한 종합형 스포츠 클럽 운영 등으로 지역민과 동반자라는 인식을 키웠던 쇼난 벨마레의 파산 위기 극복 사례,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

23) 이중섭(2018) 「J리그의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통한 K리그 적용에 대한 연구 : J리그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p.50

하라 지바가 2부 리그로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밀착 활동 강화로 오히려 관중이 증가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에 돌입하였다.<sup>24)</sup> 이후 K리그는 2018년 ‘지역 밀착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밀착 활동을 소개하고 독려함으로써 지역 내 홍보와 마케팅, 스폰서 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림 6> K리그 지역밀착활동 백서



<출처: <https://sports.donga.com/sports/article/all/20181227/93468881/2>>

이처럼 배운 것을 중심으로 K리그 구단들이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구단이 지역 밀착 활동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나아가다 보면, K리그가 현재에 멈추지 않고 산업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2-2. 일본의 선수 육성

### 2-2-1. 유스 육성의 중요성과 시스템

프로축구에는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는 선수들이 많이 존재한다. 과거 축구의 황제라 불린 펠레, 마라도나부터 시작하여, 이번 2023년 10월 31일 8번째 발롱도르<sup>25)</sup>를 수상한 리오넬 메시부터 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차기 슈퍼스타라 불리는 음바페, 홀란드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축구 스타일과 실력을 통해 축구를 빛낸 선수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릴 적부터 그 선수의 재능을 발견하고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팀에 적용하는 등, 유스 육성 시스템<sup>26)</sup>을 통해 선수가 성장하여 그 위

24) K리그 구단, 관중 증대·지역밀착 활동모델 모색, <경북일보>, 2014.02.19.,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192> (검색일 2023.10.18.)

25) 발롱도르: 1956년 프랑스의 축구 잡지 프랑스 풋볼이 창설한 축구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수상 중 최고로 명예로운 상으로, 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선수에게 주어지는 상

치까지 도달한 것이다. 축구 선진국의 대표팀에서의 성과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그 소속 선수들이 어린 시절 세계대회에서 이룬 좋은 대표팀의 성과를 볼 수 있다. 1989년, 1991년 FIFA U-20 월드컵을 연패한 포르투갈은 파울루 소자, 후이 코스타, 루이스 피구라는 유망한 선수들이 황금기를 쌓아 올렸고, 스페인에서도 사비와 카시야스, 아르헨티나의 아구에로, 메시 등 모두 U-20 트로피를 들고 이후 황금시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즉, 월드컵을 향한 도전에 있어서 육성 연대에서의 세계 성과, 그 자신감이야말로 매우 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7)</sup> 재팬스 웨이(Japan's Way)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일본의 월드컵 우승이다. 그에 맞는 준비 단계로 일본 또한 자신들의 유스 육성 시스템을 통해 선수들을 키워나가고 있다.

일본의 유스 육성 시스템의 초점은 각각의 레벨에 맞게 축구를 즐기고, 그 가운데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는 과정에서 각 연령대의 특징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이의 발육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여 연령별 단계에 따른 필요한 경험이나 자극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이 하는 경기를 같은 피치의 넓이와 인원수로 맞춘다면, 그 레벨에 맞는 적절한 경험과 자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sup>28)</sup> 이에 맞게 재팬스 웨이(Japan's Way)는 유스 선수들의 나이대를 3단계로 나누어 필요한 육성 지침을 제시하였다.

<표 1> 유스 선수들의 단계별 특징과 육성 지침 [시동]

	시동(始動) [5~8세]
특징(特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과 자신이 중심</li> <li>• 본능적인 운동 욕구</li> <li>• 호기심이 왕성함</li> <li>• 집중력 지속 X</li> <li>• 흥미에 따라 움직임</li> <li>• 모방이 특기</li> </ul>
초점(焦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N Football'에서 학습</li> <li>• 보여주는 것, 따라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li> <li>• 공에 많이 닿게 하기</li> <li>• 칭찬하기</li> <li>• 놀이 속에서 기본적인 동작을 익히게 하기</li> </ul>
성과(成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을 움직이는 것,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소년/소녀를 육성한다.</li> </ul>

26) 유스 육성 시스템: 프로스포츠에서 어린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1군 팀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7) JFA, "Japansway 2022" p.5

28) JFA, "Japansway 2022" p.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코디네이션(균형과 조화) 능력 향상된다.</li> <li>• 좌우 양발로 공을 다루는 재미를 몸에 익힌다.</li> <li>•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즐길 수 있다.</li> <li>• 단순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과제를 주어 성취감을 맛보게 하다.</li> </ul>
--	--

<출처: Japansway 2022 p.35 자료를 참조하여 제작>

첫 번째로 제시된 ‘시동(始動)’ 단계는 축구를 인지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5~8세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육성 지침이다. 이 시기에 특징은 공과 자신이 중심이 되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호기심이 가득하여 흥미를 느끼게 되면 모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점적으로 교육할 부분은 축구를 스포츠로써 이기고 지고의 어려운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이 아닌 재미있는 축구, 즉 ‘Fun Football’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발달하며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동료와 상대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그들과 함께 도전과 성취를 맛보는 것이 이 단계의 최종 성과가 될 것이다.

<표 2> 유스 선수들의 단계별 특징과 육성 지침 [성장]

	성장(成長) [9~12세]
특징(特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상심</li> <li>• 기술 획득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li> <li>• 코디네이션(균형과 조화) 향상</li> <li>• 공을 빼앗고 싶다/ 공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li> <li>• 골(승리)을 하고자 하는 열망</li> <li>• 토론할 수 있게 되다</li> </ul>
초점(焦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적인 이해력 향상을 활용하자</li> <li>• 공을 빼앗자/ 골을 빼앗자 라는 본능적인 감정을 소중히 하자</li> <li>• 팀의 일원임을 자각시키자</li> <li>• 의견을 들어주자</li> <li>• 실수를 지적하지 말자</li> </ul>
성과(成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li> <li>• 속도/강도보다 정확성을 중시하여, 판단을 수반하는 기술 익힌다.</li> <li>• 의도를 가진 플레이를 존중한다.</li> <li>• 이기고 싶은 욕구를 소중히 여기고, 저도 분함을 발판으로 의욕</li> </ul>

	로 바꾼다. • 압박 속에서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

<출처: Japansway 2022 p.35 자료를 참조하여 제작>

두 번째로 제시된 ‘성장’ 단계는 시동 단계보다 성숙해진 9세~12세 사이의 유스 선수들을 위한 지침으로, 본능을 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해진다. 이 단계의 특징으로는 발전하고자 하는 향상심에 의해 기술과 같은 스킬을 익히는 데 매우 적합하며, 승리라는 열망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을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팀의 일원임을 자각시켜주고 선수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실수를 탓하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한 피지컬 능력보단 정확성을 중점으로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여 축구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표 3> 유스 선수들의 단계별 특징과 육성 지침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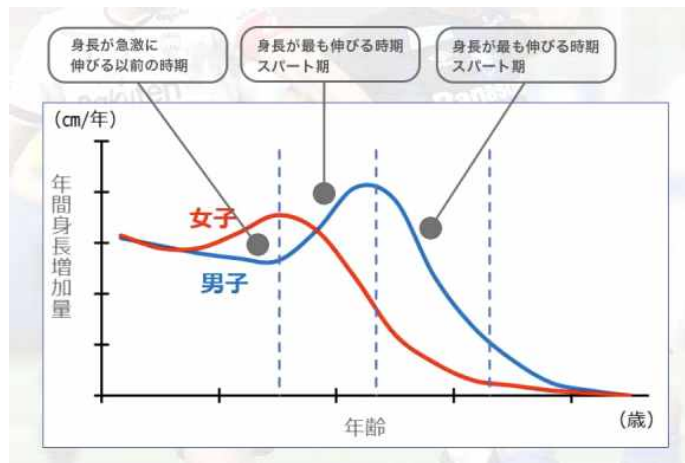
도전(成長) [13~17세]	
특징(特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의 급격한 변화</li> <li>• 자아의 발견</li> <li>• 근육/ 속도 향상 + 클램지<sup>29)</sup></li> <li>• 지구력 향상</li> <li>• 동료들과 경기하는 기쁨과 성취감</li> <li>• 의사소통 능력과 협조성</li> </ul>
초점(焦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십을 몸에 익히자</li> <li>•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자</li> <li>• 팀을 위해 플레이하는 의식을 갖게 하자</li> <li>•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자</li> <li>• 축구 지식을 몸에 익히자</li> </ul>
성과(成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변화로 인해 잘 못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시킨다.</li> <li>• 자신의 의견도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li> <li>• 자신이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을 ‘팀’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축구 노트를 붙이거나 자신의 플레이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한다.</li> <li>•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셀프 컨디셔닝이 가능하도록 한다.</li> </ul>

<출처: Japansway 2022 p.36 자료를 참조하여 제작>

마지막 세 번째로 제시된 ‘도전’ 단계는 성인이 되어 프로 선수가 되기 전의 13세~17세 사이의 유스 선수들을 위한 지침으로, 성숙해진 자신의 본모습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소통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개인보단 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팀을 위해 플레이하고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같은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체격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근력과 지구력과 같은 능력이 향상되지만, 반대로 급격한 변화에 의한 신체 능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이며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며, 자신의 플레이를 되돌아보며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주고, 직접 자기 몸을 점검하며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처럼 재팬스 웨이(Japan's Way)에선 연령별로 3단계로 나누어 편의적으로 보이게 나타냈으나, 사실 성장의 단계는 개인차가 매우 크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개인의 성장 단계에 따른 육성 지침을 만들기 위해선 PHV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 남녀 연령별 평균 신장 발육 속도 그래프



<출처: Japansway 2022 p.36>

PHV는 Peak Height Velocity의 약자로 신장 발육 속도가 가장 높은 연령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위 그래프의 연령 좌표의 시작을 0세라 두고 신장 증가량이 멈추는 지점을 성인이 된 만 18세(일본 기준)로 설정하였을 때, 일본인 남자를 기준으로 평균 12~13세에 무렵 PHV 연령이 나타난다. 하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빠른 경우 10세, 늦은 경우는 16세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다고 할 수 있

29) 클럼지(Clumsy): 서투르다, 어색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스포츠 서계에서 사용되는 통칭.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몸의 감각 변화와 유연성이 저하와 같은 현상.

다.30) 그러므로 유스 선수들을 육성할 시스템을 만들 때는, 평균적인 지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맞춰 훈련의 내용과 양을 조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2-2. 일본 축구가 지향하는 선수상

현대 축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전술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선수 개개인의 역량 또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변화무쌍한 축구 세계 속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그 흐름에 맞게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축구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을까?

<표 4> 게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고강도 러닝 횟수는 8시즌(2012~2020) 내내 증가하여 FB <sup>31)</sup> 에서 14.6%, FW에서 9.2%라는 편차가 있었다.
2. 고강도로 커버한 거리는 8시즌(2012~2020) 내내 CB(+8.2%), FB(+9.5%), MF(+9.3%), FW(+8.0%)가 늘고 있다.
3. 대부분의 포지션은 패스의 총 수, 짧은 패스, 긴 패스, 패스 성공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4. CB는 패스 총수를 늘리고(+30.6%), 짧은 패스(+31.5%), 긴 패스(+26.5%)를 늘렸다.
5. 클리어 횟수는 8시즌(2012~2020) 동안(-40.8%) 감소했고, 가로채기 횟수가 10% 증가했다.  (출처: Barca Innovation Hub)
6. 게임의 최고 수준에 있는 선수가 행하는 스프린트나 고강도 액션의 양이, 2002년부터 배로 증가하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7. 공이 플레이되고 있는 시간은 1990년에 비해 약 12분 길어졌다.
8. 그 결과 최고 수준에서 활약하기 위해선 스피드, 민첩성, 가속도가 운동 능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출처: 웨일스 축구 협회 웹사이트)

<출처: Japansway 2022 p.15>

30) JFA, "Japansway 2022" p.36

31) FB: Full Back의 약자로 경기장 측면에서 활동하는 수비수를 뜻한다.

FW: Forward의 약자로 상대편 골대에 가까이 위치하는 공격수를 뜻한다.

CB: Center Back의 약자로 상대편이 득점하는 것을 직접 저지하는 중앙 수비수를 뜻한다.

MF: Midfielder의 약자로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서 공을 연결하는 선수를 뜻한다.



위 표를 바탕으로 현대 축구의 최근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모든 포지션 선수들이 뛰는 거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면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음을 나타낸다. 또 공을 주고받는 패스에 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CB(중앙 수비수)의 경우는 패스의 빈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바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 횟수, 일명 걷어내기 횟수는 40% 이상 감소하였고 가로채기 횟수는 10%가량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수비수라는 포지션은 더 이상 상대의 공격만 차단하는 것이 아닌, 공을 유지하고 다음 우리 팀원에게 연결해줄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격수 또한 마찬가지다. <표 4>의 2번을 보면 FW(공격수) 또한 커버한 거리(수비를 위해 내려오는 거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바뀌는 현대 축구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선수란, 자신의 역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재팬스 웨이(Japan's Way)는 이러한 선수들을 육성 연대에서 길러야 할 선수상으로 정의하며, 일본 축구가 지향하는 선수상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방향은 현대 축구 트렌드에 올라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감독과 전술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팀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키우고자 한다. 다만 이 '능력'이 단순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닌 자신의 무기, 즉 '개성'이라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이면서 어떤 팀에서나 이 개성을 입힐 수 있는 선수. 자신의 책임으로 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험을 짊어지고 도전할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드워크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선수를 말한다.<sup>32)</sup> 만약 팀의 선수들이 개성 없이 틀에 맞춰진 움직임으로만 경기를 펼친다면, 상대팀에게 빠르게 간파당하여 손쉽게 대처당해 경기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프로로서 나아가 세계에서 활약을 펼치려는 선수들은 이미 프로 수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더 강한 개성을 무기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일본 축구는 그런 선수들이 팀으로서 합을 이룸과 동시에 개인의 '특징(Character)'을 '특장(Strong Point)'<sup>33)</sup>으로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 2-2-3. 엘리트 유스에 대한 오해와 개선 방향성

우리는 스포츠를 접할 때 엘리트 체육, 엘리트 선수 육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엘리트 스포츠의 사전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트(elite)와 스포츠(sport)가 합쳐진 단어로 어떤 뜻이 존재하는 것 같으나, 정확하게 어떤 스포츠나 체육을 이야기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34)</sup> 우리나라의 과거로 올라가면 1972년 11월 9일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77호)에 의거하여 체육 기량이 우수한 우수 선수들을 학교 급별 연계 육성체제를 확립한 '체육특기자' 선발이 존재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엘리트 체육으로 알고 있는 체제로,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32) JFA, "Japansway 2022" p.16

33) JFA, "Japansway 2022" p.17

34) 김정효, 남궁영호(2009)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문화철학적 고찰」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7권 제1호, 83-100 p.86

운동에만 매진하여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체육특기자 제도의 불안정한 정착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했다. 운동만 잘하면 원하는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입시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학업성과 같은 운동과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대회 성적에만 몰두하게 되면서 선수폭력 문제나 선수단 내 군기 문화 같은 악습이 나타났다.<sup>35)</sup>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위 선양, 운동에 매진하여 발생하는 공교육 부족, 중퇴 혹은 은퇴 후 안전망의 부재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 육성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체육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그 스포츠를 바라보며 응원했던 국민의 시선은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엘리트’ 선수라는 말은 거부감이 강한 단어로 인식된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듯 불평등하게 남보다 앞선 출발선에서 더 좋은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축구 협회(JFA)는 ‘엘리트’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리더이자 봉사자이며, 확고한 윤리관과 사회 봉사 정신을 겸비한 자들을 말합니다. 특권계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래 오히려 전장에서 앞장서서 싸우러 가는 존재이며, 그자들에게는 항상 막중한 사회적인 의무가 따릅니다.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좋은 환경과 지도를 주고, 그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sup>36)</sup>

엘리트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집단의 평등을 해치고 누군가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잘못 오해되면, 이는 그 집단의 수준 저하와 리더의 부재가 생기는 문제를 발생한다. 이때의 평등은 ‘누구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가 아닌 ‘능력에 따른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 축구계는 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해, 축구에서 필요한 판단력이나 리더십과 같은 큰 임무를 수행하면서, 축구계를 초월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37)</sup>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본이 2050년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욱 추가된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엘리트 유스 선수들 존재가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면 일본이 목표로 하는 엘리트 선수로 가기 위한 엘리트 유스 선수들은 모습은 어떻게?

#### <그림 7> 일본이 목표로 하는 엘리트 유스 선수

35) 김동식(2021) 「학생선수의 탄생 :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변천 과정」 『한국초등체육학회지』 제27권 제1호 pp.76-81

36) JFA, JFAエリートプログラム, [http://www.jfa.jp/youth\\_development/elite\\_programme/training\\_system.html](http://www.jfa.jp/youth_development/elite_programme/training_system.html) (검색일 2023.11.01.)

37) JFA, “Japansway 2022” p.37

<b>日本の目指す エリートユース選手</b>	■16歳、17歳でプロデビューできる選手	■生涯、サッカー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選手
	■10代でA代表に選出される選手	■サッカー界のみならず社会に貢献できる選手
	■プロサッカー選手として活躍できる選手	

<출처: Japansway 2022 p.38>

위 <그림 7>을 살펴보면, 엘리트 유스 선수들이 요구되는 프로 데뷔의 나이는 16세, 17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K리그 기준 198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6~19세의 나이에 프로 선수로 데뷔하는 비율이 10.3%(20~22세 30.4%, 23~25세 50.9%, 26세 이상 8.5%)<sup>38)</sup>인 것을 생각하면 어려운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0대에 A 대표팀(성인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선수, 프로축구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를 목표로 한다. 이때 프로축구선수로서의 활약은 일본의 J리그라는 국내 수준을 넘어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로 성장하여 축구를 즐기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리더적인 측면을 가지는 것이 일본 축구가 원하는 진정한 엘리트 선수이다.

우리나라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유스들의 존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여태까지 추구했던 엘리트 체육이 아닌, 일본 축구 협회(JFA)에서 말한 진정한 ‘엘리트’로 성장 중인 이강인<sup>39)</sup>(22세, 파리 생제르맹 FC) 선수가 그 예이다. 세계적인 무대를 일찍 경험하고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축구 실력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는 선수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한국 축구에도 좋은 지표이자 발전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지침이 된다. 이처럼 한국 축구, 나아가 한국 체육에서부터 잘못 사용되고 있던 엘리트라는 개념과 체계를 다시 한 번 재구조화하여, 앞으로 올바른 엘리트 유스들의 성장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 2-3. 일본의 지도자 양성

### 2-3-1. 일본 축구의 지도자 양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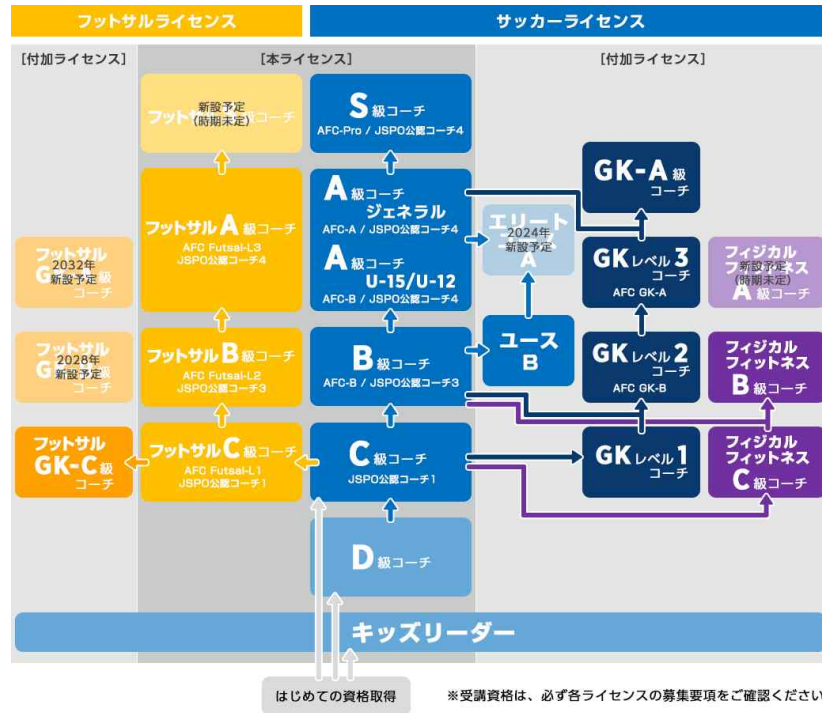
위 본문에서 언급했던 선수 육성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유능한 지도자이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아이들, 나아가 이미 프로축구선수가 된 선수들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직접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 만나게 될 지도자의 역할이 그 선수의 장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유능한 지도자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38) 주호진(2023) 「프로축구선수의 데뷔 시기에 따른 선수 경력 분석」 『문화와융합 : 한국문화융합학회』 제45권 제7호, 597-605 p.599

39) 이강인: 2007년 어릴 때부터 인기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 3기에 출연하여 故유상철 감독의 제자로 높은 활약을 펼쳤다. 이후 2011년 10살이라는 나이로 스페인 명문 클럽 발렌시아 CF 유소년 팀 입단 후, 발렌시아 CF, RCD 마요르카를 거쳐 현 파리 생제르맹 FC 소속 축구 선수로 성장하였다.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체계가 필요하다. J리그는 풋볼 비전에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자라는 리그가 된다(世界で最も人が育つリーグになる)’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헤드 오브 코칭(Head of Coaching) 양성 코스인 ‘JHoC’과 함께 각 아카데미 내에서 지도자 육성, 지속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sup>40)</sup>

<그림 8> 지도자 라이선스 체계



<출처: JFA 指導者, <http://www.jfa.jp/coach/official/training.html>>

위 그림은 지도자 라이선스 체계에 관한 단계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첫 단계인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키즈 리더(キッズ 리더)부터 질 높은 프로 수준의 지도를 할 정도의 S급 코치(S級コーチ)까지, 다양한 포지션과 급수에 따라 지도자의 라이선스를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목표로 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되어 있다.

이런 체계적인 것과 동시에, 일본 축구는 지도자의 길을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설계하여,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 축구 협회(JFA)에서 진행하는 ‘지도자 양성 강습회’와 같이 <그림 8>에 나와 있는 C급 라이선스와 B급 라이선스 수준 코치 라이선스 강습회와 같은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sup>41)</sup> 해외로 나가 활약하는 일본 축구 지도자와 선수로서 희귀한 경험을 쌓은 사람과 같은 전

40) JFA, “Japansway 2022” p.46

41) JFA, 指導者\_講習会を受講する, [https://www.jfa.jp/grass\\_roots/declaration/](https://www.jfa.jp/grass_roots/declaration/) (검색일: 2023.11.05.)

문인도 있지만, 지도 경험은 없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 자녀와 함께 축구를 통해 친근해지고 싶은 사람까지. 일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지도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sup>42)</sup> 이는 J리그 백년구상의 핵심 중 하나인 풀뿌리 축구와 연계되어, 일본 전국 어디서든 축구를 즐겁게 해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2-3-2. 축구에서 지도자의 진정한 역할

경기의 지도자를 다른 말로 하면 코치(Coach)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코치(Coach)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마차가 최초로 만들어졌던 지명인 헝가리의 코치(Kocs)라는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그 이후 가고 싶은 곳으로 이끈다는 의미로서 지도자를 코치라고 불렀다.<sup>43)</sup> 그렇게 현대로 넘어와, 코치는 선수들에게 경기에 관한 기술이나 전술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맡고 있다. 하지만 어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치는 선수가 가고자하는 도착점을 잘못 보거나 마음대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코치의 역할은 선수가 하고자하는 목표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배우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축구는 지도자에게 어떤 지도 방식을 요구하고 있을까? 우선 코칭 방법을 살펴보자면 ‘싱크로 코칭(Synchro Coaching)’, ‘프리즈 코칭(Freeze Coaching)’, ‘미팅(Meeting)’으로 총 3가지의 방식의 예를 들고 있다.<sup>44)</sup> 우선 첫 번째 싱크로 코칭(Synchro Coaching)은 축구 연습에서 선수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해야 할 때, 선수의 움직임에 멈추지 않고 코칭하는 방법이다. 경기를 멈추지 않고 전달하기 때문에 단적이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선수가 집중을 끊지 않고 경기에 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지도받기 때문에 상황이나 내용을 몸으로 기억하여 잘 잊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sup>45)</sup>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며 뛰고 있는 와중 감독의 지시를 듣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선수들의 태도나 전술적인 움직임을 바꿀 전달력이 중요한 코칭 방법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프리즈 코칭(Freeze Coaching)은 축구 연습에서 선수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해야 할 때, 선수의 움직임을 멈추고 코칭하는 방법이다. 선수가 생각하게 하고 그 움직임을 지시하여 행동하게 한 후, 다시 연습을 재개할 때 사용한다. 상황을 오려내 재현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몸에 새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46)</sup> 싱크로 코칭과 다르게 경기를 멈추고 지시를 전달하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경기에서 보단 좀 더 연습 경기 상황에서 쓰기 적합한 코칭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 미팅(Meeting)은 선수 전원을 불러

42) JFA, “Japansway 2022” p.47

43) 코치와 보스, <경남매일>, 2009.03.25.,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743> (검색일: 2023.11.07.)

44) JFA, “Japansway 2022” p.49

45) 사카본, ‘코칭의 기본’ 중 3가지의 지도 방법 중 ‘싱크로 코칭’에 대해, <https://sakabon.net/synchro-coaching/> (검색일: 2023.11.08.)

46) 사카본, ‘코칭의 기본’ 중 3가지의 지도 방법 중 ‘프리즈 코칭’에 대해, <https://sakabon.net/freeze-coaching/> (검색일: 2023.11.08.)

모아 이야기하고 경기나 연습을 되돌아보며 좋았던 점과 과제나 개선점을 코칭하는 방법이다.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도 알 수 있고, 선수와 지도자가 공통된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sup>47)</sup> 경기하거나 연습을 하는 중이 아닌, 전부 마치고 모두 모이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 코칭 방법이며, 오늘 선수들이 느꼈던 것을 다시 되새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전문적인 코칭 방법과 더불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도자의 역할은 선수가 즐겁게 뛰면서 배우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선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레벨이나 연령대에 따른 코칭 방법을 나누고, 선수들의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sup>48)</sup>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목표 의식이다. 선수가 경기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하는 과정에서 그 선수의 도전적인 자세를 만들고, 좋았던 부분을 칭찬과 격려함으로써 선수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3.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재언

이렇게 재팬스 웨이(Japan's Way)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본 축구의 발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단 몇 개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만으론 일본 축구가 어떻게 발전 중인지 모두 다룰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재팬스 웨이(Japan's Way)의 프롤로그에도 명시돼있는 오카다 다케시<sup>49)</sup>가 말한 일본 축구가 성장하고 있는 힘의 결집체 3가지인 'J리그의 발족', '유서 연대의 육성', '지도자 양성'<sup>50)</sup>에 대해 다루어본 것이다. 하지만 제목에서도 명시했듯이,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연구하고 싶었던 내용은 일본 축구가 좋은 흐름으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 축구가 취해야 하는 자세와 방향은 무엇인가이다. 전 세계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자신들만의 무기가 필요하며 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 이 무기는 본문에서도 다뤘듯이 기술적인 부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밀착 활동이나 엘리트 유스를 다루는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물론 무작정 일본 축구가 준비하는 과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K리그가 J리그의 지역 밀착 활동 사례를 벤치마킹하듯이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꼭 이웃나라이자 축구 라이벌인 일본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필연적인 해답은 아니다. 하지만 월드컵 우승에 가까운 나라들의 선진축구를 연구하고 실행하려 하는 재팬스 웨이(Japan's Way) 프로젝트의 뚜렷한 목표 의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축구도 하루빨리 그런 미래를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

47) サカボン, ユーチングの基本である3つの指導とは?「ミーティング」について, <https://sakabon.net/meeting/> (검색일: 2023.11.08.)

48) JFA, "Japansway 2022" p.48

49) 오카다 다케시: 전 일본 축구 선수이자 2번의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후에 일본 축구협회 부회장(2016~2018)에 오른 인물

50) JFA, "Japansway 2022" p.3

[참고 문헌]

- 김동식(2021) 「학생선수의 탄생 :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변천 과정」 『한국초등체육학회지』 제27권 제1호, 한국초등체육학회, pp.76-81
- 김정호, 남궁영호(2009)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문화철학적 고찰」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7권 제1호, 한국체육철학회, pp.83-100
- 이중섭(2018) 「J리그의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통한 K리그 적용에 대한 연구 : J리그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 주호진(2023) 「프로축구선수의 데뷔 시기에 따른 선수 경력 분석」 『문화와융합』 제45권 제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pp.597-605

[참고 자료]

JFA, “Japansway 2022”

FIFA\_국제축구연맹, 숫자로 보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무엇보다 갈망하는 우승컵, 월드컵 트로피, <https://www.fifa.com/fifaplus/ko/articles/world-cup-trophy-in-numbers-fifa-world-cup-qatar-2022-ko> (검색일: 2023.09.22.)

FIFA\_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역대 우승팀, [https://www.fifa.com/fifaplus/ko/watch/9hoKx\\_KwckugreE8cDyPPQ](https://www.fifa.com/fifaplus/ko/watch/9hoKx_KwckugreE8cDyPPQ) (검색일: 2023.09.22.)

JFA, 指導者\_講習会を受講する, [https://www.jfa.jp/grass\\_roots/declaration/](https://www.jfa.jp/grass_roots/declaration/) (검색일: 2023.11.05.)

JFA, JFAグラスルーツ宣言, [https://www.jfa.jp/grass\\_roots/declaration/](https://www.jfa.jp/grass_roots/declaration/) (검색일: 2023.11.03.)

JFA, JFAエリートプログラム, [http://www.jfa.jp/youth\\_development/elite\\_programme/training\\_system.html](http://www.jfa.jp/youth_development/elite_programme/training_system.html) (검색일 2023.11.01.)

KFA\_대한축구협회, [https://www.kfa.or.kr/national/?act=nt\\_man](https://www.kfa.or.kr/national/?act=nt_man) (검색일: 2023.09.17.)

サカボン, コーチングの基本である3つの指導とは? 「シンクロコーチング」について, <https://sakabon.net/synchro-coaching/> (검색일: 2023.11.08.)

サカボン, コーチングの基本である3つの指導とは? 「フリーズコーチング」について, <https://sakabon.net/freeze-coaching/> (검색일: 2023.11.08.)

サカボン, コーチングの基本である3つの指導とは? 「ミーティング」について, <https://sakabon.net/meeting/> (검색일: 2023.11.08.)

スクスクのっぽくん, サッカーW杯出場国の選手の平均身長一覧, <https://www.suku-noppo.jp>

p/data/w-cup\_2022.html (검색일: 2023.10.01.)

“Jリーグ開幕30年：驚異的成長と挫折を経て手にした果実と「百年構想」の未来”, <日本情報多言語発信サイト>, 2023.05.22., <https://www.nippon.com/ja/japan-topics/g02291/> (검색일: 2023.10.03.)

"J리가 가장 어려워"…울산에서 뛰었던 레오나르도의 한·중·일 비교, <스포탈코리아>, 2023.08.17., [https://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23081712595218](https://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23081712595218) (검색일: 2023.10.10.)

J리그 규정까지 바꿨다… ‘월드스타’ 이니에스타가 5년간 일본축구에 남긴 것. <조선일보>, 2023.07.02., <https://www.chosun.com/sports/world-football/2023/07/02/SN4IKKQVB7X3V4TACAD5UAV3QI/> (검색일: 2023.10.17.)

K리그 30년… 자립 기반은 먼 길, J리그 ‘지역 밀착 마케팅’ 배워라. <경향신문>, 2014.01.21., <https://www.khan.co.kr/sports/football/article/201401212100235> (검색일 2023.10.15.)

K리그와 J리그는 출발부터 수준이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여전하다. <SPOTVnews>, 2018.07.27.,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92> (검색일: 2023.10.12.)

K리그 구단, 관중 증대·지역밀착 활동모델 모색. <경북일보>, 2014.02.19.,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192> (검색일 2023.10.18.)

“유럽 축구, 코로나로 2조7000억원 손해”, <경향신문>, 2021.08.25., <https://www.khan.co.kr/sports/football/article/202108252204005> (검색일: 2023.10.10.)

코치와 보스, <경남매일>, 2009.03.25.,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743> (검색일: 2023.11.07.)

“한국은 피지컬, 일본은 기술과 연계 플레이”…일본 지도자·선수가 말하는 韓-日 축구의 차이, <스포츠서울>, 2023. 09. 26.,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52862> (검색일: 2023.10.02.)